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6)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전용문(소설가)

눈밭에서 정사가 끝난 후, 청바지와 헤어진 김현수는 처음의 그들 방으로 되돌아왔다. 신일지는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현수는 남아 있는 술병을 들고 그대로 마셨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이 오면 그들 이상한 동거인은 서로를 쳐다보며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테지.

- 중대장님은 언제 가셨지?
- 손님이라고 초대해놓고는 주인이 먼저 술에 굶아 떨어졌으니 손님이 무슨 재미로 붙어 있겠어? 자기가 잠든 사이에 가고 말았겠지. 이 좁은 방에서 함께 잠들기도 어려웠을 텐데 잘 갔지 뭐야.
- 그런데 자기는 언제 뒷채 할머니 방으로 건너갔지? 술 취해 있었으니까 도통 알 수가 없군.
- 내가 올라간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몰라? 두 사람 모두 잔뜩 술이 취해 있기에 같이 자라고 하고 나 혼자 먼저 올라갔어. 아마 자정쯤 됐을 걸.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마셨나 보지.
- 뭐가 뭔지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는군. 온통 필름이 끊겨놔서 언제 중대장님이 떠나고 자기가 뒷채로 올라갔는지 통 생각이 없어.

머리를 감싸 쥐며 자리에 돌아눕는 신일지를 향해 청바지는 혀를 날름거릴지도 모른다.

김현수는 옷을 추슬러 입고 반쯤 마시다 남은 술병을 한 손에 잡았다. 문을 열다말고 되돌아서 백열등을 켜다. 백열등에는 파리똥이 딱지딱지 앉아 있는 것이 술 취한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적지 않은 술을 마셨는데도 이렇게 말짱하게 사물을 구별해 내다니. 부엌문을 열고 닫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의 빗장을 풀었다. 이곳에서야 하루 밤새 대문을 열어두고 나간다고 해도 특별히 잃어버릴 귀중한 물건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신일지가 술 취해 돌돌 말아 잠들고 있는 낡은 이불자락이라도 훑쳐간다면 몰라도 깨어진 쪽박 하나 훑쳐갈 게 없었다.

그는 골목을 돌아 나왔다. 문득 여자와 함께 텅군 뒤란쪽 채마밭이 걱정되었다. 누군가 어지러운 눈자욱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생각이 기우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밤새 눈이 내릴 텐데, 남녀가 엉겨 붙었던 그 자리는 자연히 흔적이 지워질 것이고, 그들의 체중에 의해 파였던 구덩이는 또 다른 눈으로 채워지겠지. 어차피 비어 있는 여백은 무엇으로든 채워지기 마련이 아니던가?

그런데 청바지는 어떨까? 오늘밤 그가 아니고 다른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은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졌을까? 그 일은 그와 그녀만이 갖는 유일한 행위였을까?

김현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청바지가 아니고 다른 여자였다면? 물론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빠르고도 쉽게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혹시 모른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요사스럽고도 황당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는 그 야릇한 밤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자를, 신일지를, 자기 자신조차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지금 몸도 마음도 물에 젖은 듯 무겁게 지쳐 있을 뿐이었다.

골목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서울을 향한 평평한 길이 이어져 있었다. 차들의 운행이 끝나버린 이 시각에 길은 텅텅 비어 인적 하나 없었다. 눈이 쌓여 있어 밤길이 암흑천지만은 아닌 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는 문득 몽환적인 생각에 빠져들었다. 불 밝히고 떠나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만 안타까움 같은 것을.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체험하기라도 한 듯한 환상에 붙들렸다. 마을의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마지막 버스가 그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밝은 불빛이 비치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은 지극히 편안하고 아늑하기 그지없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는 들고 있던 술병을 기울여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이 버스를 타게 된다면 눈 내리고 바람 부는 오지의 이곳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불 밝힌 차 속은 스팀이 적당히 들어와 얼어붙은 몸을 훈훈하게 덥혀줄 것이 분명하다. 그는 차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본 듯했다.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버스는 그를 발견하고 잠시 서행하다가는 비틀거리는 그를 내팽개쳐두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다. 어둠속으로 달려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드러난 밝은 하늘에서 무수한 눈발이 깃털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불 밝고 따스한 버스 안이 부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다 잡아놓은 자 짜리 붕어 한 마리를 건져내려다 놓쳐버린 안타까움 같은 것이 목울대를 킁 막히게 했다. 그는 지나간 버스 뒤꽂무니를 향해 들고 있던 술병을 냅다 던졌다. 버스의 유리창이라도 박살나라고 던진 술병은 차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길거리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깨어졌다. 으흐흐---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울부짖음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내리는 눈이 김현수가 입고 있는 야전 잡비의 깃을 헤집고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순간 퍼뜩 정신이 들며 환시에서 깨어났다. 지금 뭘 보았는가? 지금의 시각이 몇 시인데 불 밝히고 떠나는 버스를 보았다는 말인가? 머리가 돌기라도 했는가?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어둠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텅 빈 길을 노려보았다. 목덜미를 파고드는 눈이 물방울을 만들어 등허리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그는 후드득 목을 털며 들고 있는 술병을 기울여 술을 마셨다. 술마저 없었다면 이 추위와 어둠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길은 끝없이 멀고도 길게 이어져 있었다. 술병을 쥐고 길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술 마시기를 잊은 듯 만
듯 할 때마다 술병을 입에 데고 짹짹 마시다가는 그대로 걸어갔다. 술병이 바닥났을 때 온몸에 취기가
올랐다. 오늘 저녁 마신 엄청난 술에 비해 그가 느끼는 취기는 참으로 늦고도 완만하게 찾아왔다. 갑자기 걸
음이 비틀비틀 했다. 그는 바닥을 드러낸 술병을 강 쪽을 향해 던졌다. '잘 가라. 그리고 부서져 깨어져라. 이
작은 악마의 새끼야 그는 그대로 눈 위에 퍼질러 누워 잠들고 싶었다. 바람은 여전히 무섭게 불어 그를 내리
는 눈 속으로 휘몰아 넣어 공중으로 날려버릴 듯했다. 불어 닥치는 바람과 찬 냉기류 에 노출되어 그대로 잠
이 든다면 새벽이 오기 전에 그는 틀림없이 송장이 될 것이다. 아침에 길을 걷던 사람들이 눈 속에 파묻혀 죽
은 군의관 대위를 발견하고 그들끼리 수군거리겠지.

-아까운 청년이 자살을 했구먼. 왜 이 먼 길을 와서 죽었을까?

-차를 놓치고 혼자 걸어오다 변을 당한 모양이지. 쫓쫓, 가련하기도 해.

-부대 내에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었나 보지. 시위 하느라고 이런 짓을 혼자 저질렀을 거야.

죽음의 형태는 각각이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제 멋대로다. 사후에 무슨 말을 어
떻게 하든 그 모든 것은 산자의 몫이며, 죽은 자로부터는 이미 떠나버린 열외의 공간이다.

그는 눈더미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꺾고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대로
얌전 영원한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 가버릴까? 아니다.

나는 단지 지금 술에 취해 있을 뿐이다. 악마의 유혹에 빠져 일시적 유혹에 젖었을 따름이다. 일어나자.
외과의사 김현수가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만은 없지. 그러나 오늘 저녁에 만난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하강
한 신녀처럼 아름답고 매혹적이지 않았던가. 그녀는 참으로 현란한 유혹이었으며 눈부신 광채였다.

오늘밤의 일은 나에게 내려준 신의 은총으로 생각하자. 나쁜 방향으로 생각할수록 내가 느낄 고통만 배
가될 것이다. 이제 나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을 털어내고 오늘밤 안으로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야 한다. 그것만이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오늘을 무사히 마무리 짓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청바지는
한 때의 지나간 몽환적인 꿈으로 생각하자.

그런데 눈은 언제 이렇게 많이 쌓였지?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를 수차례, 눈 위에 뒹굴면서 온 몸에
눈투성이가 되어 화전부근에 이른 시각은 새벽 3 시경이었다. 화전까지는 겨우 왔으나 아직 다니는 차량이
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부근에는 숙박시설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너절한 여인숙 따위의 간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적어도 수색까지는 나와야 차편을 이용하든지 숙박할 여관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또다시 어두운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춥고 지쳐 차라리 강변으로 걸어 나가 퐁퐁 얼어붙어 있
는 강물위에 몸을 던져 한순간에 동태처럼 사지가 뻗뻗하게 굳어지는 냉동인간이 되기를 바랐다. 겉듯이 기
듯이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 수색이 가까워 오는 지점까지 왔을 때, 때맞추어 출발하려는 택시 한 대를 간신히



히 붙잡았다.

택시 기사가 그의 집 부근에 차를 주차 시켜두고 잠을 잔 후에, 새벽에 일어나 첫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었다. 기사는 백미러로 눈사람 하나가 걸어와 그의 차 뒷문을 두드리는 걸 보았다. 기사가 눈을 뒤집어 쓴 사람임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었을 때, 그는 쓰러지듯 시트위에 누우며 겨우 한 마디를 토해냈다.

-역춘동으로.

운전기사가 이상한 눈짓으로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곧장 차를 출발시켰다. 새벽부터 묘한 손님을 만났군. 기사는 처음 탑승을 거부할까 생각했는데 눈사람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장교 복장이었다. 군복에 부착된 마크를 자세히 살펴보니 군의관이 분명한데, 무슨 의사가 새벽녘에 눈몽치를 뒤집어쓰고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차문을 두드렸을까?

오늘 저 첫 손님으로 인해 재수가 좋을지 아니면 형편없이 운 나쁜 일이 생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아하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아닌 듯 하니 손님 요구대로 일단 가보자. 차는 신촌 고가다리 밑을 지나 홍은동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막 차들이 드문드문 다니기 시작한 눈길을 헤쳐 곧장 목적지에 닿았다. 차가 멎은 후 김현수는 차 뒷문을 열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 눈 위에 그대로 나뒹굴었다. 그리고는 아전잠바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집히는 대로 돈을 꺼내들고 기사에게 받아가도 좋다는 시늉을 했다. 기사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새벽에 느닷없이 맞이한 이 돌연한 손님의 행동이 오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첫 손님한테 받은 돈만으로도 오늘 오전 수입은 거뜬하게 챙기지 않았는가? 운전을 하다 불길한 생각이 들면 오후에는 쉬도록 하지 뭐. 결심을 굳힌 기사가 돈을 받고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김현수는 눈 위에 그대로 퍼질고 앉은 채 완강히 기사의 행동을 저지시켰다. 그리고는 한결 맑아진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떠나도 좋습니다.

차가 떠난 후, 김현수는 일어섰다. 몇 발자국 걸어 그의 집 대문 초인종을 눌렀다. 그곳에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나 마음 놓고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이 날 새벽에 더 절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그의 아내는 아직도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과 술과 피로와 격정으로 침몰해버린 한 남자를 발견한 후 그녀는 놀람을 감춘 채 침착하게 말했다.

-시골로 내려가려고 작정 했으니, 제발 당신 어린애처럼 이르지 말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라놓았으나 그는 대꾸 한마디 없이 그대로 거실 소파위에 엎드려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계속> 